

문화포커스 공공 문화시설만 늘면 뭐하나

# 건물보다 사람... 미술관·공연장 전문인력 확충을

제주비엔날레 대체 전시  
대행사 인력에 의존 진행  
공공 공연장 나홀로 기획  
기획팀 신설 실행은 뒷전  
문화관도 인력 보강 주문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제주' 기획전. 제주비엔날레 대체 행사로 대행사에서 전시를 꾸렸다.

제주에 공립 문화 시설은 늘고 있지만 시설에 색깔을 입힐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립미술관, 공공 공연장 등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2022년에는 건물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문화 예술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제주도립미술관이 제2회 제주비엔날레 대체 행사로 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제주' 기획전. 코로나19 속 제주 섬의 정체성 등을 탐색한 영상·설치 등 신작들이 펼쳐지는 이 전시는 도립미술관이 기획했지만 큐레이터, 홍보 등 '실무'를 맡은 6명은 대행사 인력이다. 도립미술관 학예인력이 관장을 포함 6명에 그치는 현실에서 해당 기획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수장고를 관리하는 제주현대미술관은 학예인력이 관

장 포함 3명이고, 김창열미술관도 3명이다. 이중섭미술관은 2명이고 기담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주사관은 1명씩 꾸려가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거듭 거론되자 제주도는 올해 제주비엔날레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 공공수장고 학예인력 1명을 배정했지만 이 역시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공 공연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제주도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자를 1명씩 두고 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자 1인이 홍보, 하우스매니저 등 다역을 담당하는 것만이 아

니라 직무 수행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3개 공연장 중에서 가장 많은 객석 수의 대극장을 보유한 제주아트센터의 경우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팀 신설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주아트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아트센터 측은 "기획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직원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공무원 2명을 하우스매니저로 활용하면서 기획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자 1인이 홍보, 하우스매니저 등 다역을 담당하는 것만이 아

뒸붙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립 제주문화관도 전문인력 확충이 과제로 거론됐다. 개관 기념 세미나에서 제주문화관이 문헌연구의 거점을 분담하고 기획전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주문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도내 공공 문화기반시설들이 이처럼 전문인력 확보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앞서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의뢰로 내놓은 '제주 문화예술의 심 활성화 전략'(2019) 보고서에는 '문화 매개자'의 전문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제주지역에는 미술관·박물관 등의 문화공간만 있고, 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고, 제주에서는 행사만 치르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과 예산 등을 확보하고, 수요자 조사를 거친 후 목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문화 매개자 양성 후 일자리 연계까지 사후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선희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17)

## 새해의 산문

아침 일찍 애월까지 가야 할 약속이 있어 눈을 뜨자마자 씻고 집을 나섰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차를 가지고 언덕을 내려갈 수 없었다. 다행히 집에서 백 미터만 나가면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갈 요량으로 외투 옷깃을 잡아매고 털모자를 둘러쓴 채 도롯가에서 서 있자니 세상에서 가장 큰 창을 마주한 듯 바다는 멀리 물러나 있는 미색으로 다가왔다. 버스는 제시 간에 오지 않았다.

그때 이웃 빌라에 세 사는 삼심대 초반의 여인이 작은 카트에 무언가를 싣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굴뚝을 갈아엎은 채 놀리고 있는 건너편 빈 땅 안으로 들어갔다. 거긴 마치 공사장이나 고물상처럼 큰 가림막이 쳐있고 그 안엔 흰 기계 부품들이 널려있으며 컨테이너까지 있어 미관상 이웃들의 불평을 사는 바로 그 땅이다. 여인은 허리를 숙이고 카드 위의 비닐봉지에서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뒤에서 보니 마치 두터운 누빈 외투를 열고 품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정성스레 내려놓는 모양새이다. 마을 헤어숍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판에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다. 그 집에 가끔 지인들이 놀러오면 밤새 먹고 마시고 떠들어 조용한 동네가 요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여인과 내가 얼굴을 제대로 마주친 건 한 번뿐이다. 어느 날 현

관문을 밀고 나가니 여인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당 안으로 들어와 화단을 구경하고 심지어 뒤뜰까지 둘러보고 나가는 참이었다. 나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여인이 모습을 드러낸 지 5분도 안 돼 열댓 마리 길고양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여인은 쇼퍼백에서 꺼낸 플라스틱 그릇들을 하얀 눈밭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검은 비닐봉지에 든 사료를 차례로 조심스레 놓아주었다. 그런데 지켜보니 수십 개의 그릇이 쇼퍼백에서 나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에 두 개씩의 그릇을 주어 사료와 물을 따로 주고, 더욱이 보온통에서 더운물을 따라 일일이 찬물과 섞어서 주는 것이었다. 마치 지휘자처럼 머뭇거리도 없이 몰입해 고양이들을 나누고 한쪽으로 몰며 자기 할 일을 해낸다. 여인은 그중 약해 보이는 고양이 몇 마리를 컨테이너 옆으로 따로 불러 밥을 주고, 고양이뱃을 꺼내 털이 곤두선 고양이들의 털을 빗겨주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둘러 모여 있는 세상을 보는 거 같고 글세, 이 추운 아침에도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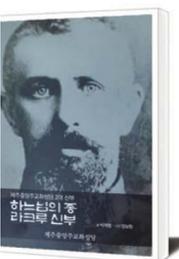
그런 사이에 아침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시인>

## '신축교안' 중심에 있던 외국인 사제

천주교제주교구 중앙성당  
박재형의 '... 라크루 신부'

'신축향쟁', '이재수의 난', '신축민란' 등으로 불리는 1901년 '신축교안'의 중심에 있던 외국인 사제를 다룬 책이 나왔다. 천주교제주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이 2021년 '신축교안' 1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출간한 '하느님의 종 라크루 신부'다.

그동안 맥그린치 신부, 최정숙 교육감 등 제주 천주교 관련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단행본을 집필했던 박재형 작가가 글을 쓰고 양보현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회의 회장의 사진이 더해진 '하느님의 종...'은 중앙성당 2대 신부로 15년간 재직하며 초기 제주 천주교회의 기반을 다진 라크루 신부(1871~1929)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라크루 신부가 당시 뫼비주교에게 보낸 서신 등에 바탕해 사제



가 겪었을 고통과 연민을 떠올리면서 프랑스에서 서울, 김제, 제주, 전주 전동성당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발자취를 짚었다. 고인의 유해는 전주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에 잠들어 있다.

파리신학원에서 수학한 라크루 신부는 1894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해 프랑스를 떠나 서울에 도착한다. 1895년 전북 김제 수류성당을 거쳐 1900년 6월 제주에 부임한 라크루 신부는 이듬해 벌어진 신축교안의 현장에서 수많은 신자들의 살상을 고통 속에 지켜봐야 했다. 그는 신축교안 이후 선교지에서 문화 우월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역문화가 가진 특이함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교세 회복을 통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여성 교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성학원 설립을 이끈 것도 라크루 신부였다. 비매품.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뮤지컬 공연영상 상영

서귀포예술의전당이 1월 한 달 동안 신년 특집으로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작품의 공연 장면을 영상으로 상영한다.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서귀포예당 소극장이다. 상영작은 5일 '레미제라블' 25주

년 기념공연(2011년 제작, 전체 관람가), 12일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공연(2012년 제작, 12세 이상 관람가), 19일 '미스 사이공' 25주년 특별공연(2016년 제작, 15세 이상 관람가), 26일 '캣츠'(1998년 제작, 12세 이상 관람가)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행사로 93석에 한해 선착순 개방한다.

# 어머니 반찬 도시락

**출장뷔페** - 결혼피로연, 돌잔치, 체육대회, 집들이, 아유회 각종행사  
- 소규모행사 법차 운행

**도시락 주문받습니다.** 정식도시락A 6,000원 | 정식도시락B 7,000원 | 한정도시락 10,000원 | 일식도시락 10,000원 | 특정도시락 15,000원 | **단체 도시락 (1인 5,000원 ~ 20,000원)**

**월 계약 반찬 납품**  
- 매일매일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A 타입 : 국, 메인반찬 2종, 밑반찬 5종 ① 5,000원 **2인 이상 제주도 전역 납품가능**  
B 타입 : 국, 메인반찬 1종, 밑반찬 4종 ① 4,000원

**제사, 명절음식 차례상, 고사상 저희 조상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반찬 종합 쇼핑물**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시는 반찬을 골라 주문하세요

어머니반찬도시락 <http://www.foodmom.co.kr> | 1566-9138 제주시 동한두길 42-1 (응암1동 386번지)

# 35년 전통의 산호당구재료

그동안 여러분의 고마움과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당구용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 실시합니다.

**개인용품**들도 다양하게 준비 전시하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직접 보시고 구입하세요.  
(팁, 초크 30여종 장갑 그림 및 기타 개인용품)

**당구장 중대 천 - 25,000원** ※ **대대천**도 인터넷 가격 보다 저렴 판매  
(시모니스 고리나 제니스 타키니 아크 등등)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한발큐, 빌킹큐, 고리나, 은성큐, 코리아큐, 기타 수입대대 및 각종 당구대 총판

**큐 수리 공방은 2022년 1월 중순경부터 운영**(상·하대 조인트, 선골수리, 팁 부착, 기타수리)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 TEL. (064) 757-5710, 5488 | H.P. 010-3699-3967